

KB국민은행, 구인·구직 만남의 장 연다

홈피·앱서 17일까지 비대면 진행 대기업 협력사 등 700여 곳 참가 스피치 트레이닝 등 구직자 지원 기업에 채용지원금 쓰고 금리우대 인력난 해소·채용 활성화에 앞장



구직자에게는 우량 일자리를,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2022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가 7~17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2022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포스터. 사진제공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7~17일 KB굿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방식의 '2022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자를 겪고 있는 구직자와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우량 중견·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직자에게는 우량 일자리를,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제공한다.

● 성공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

KB굿잡 취업박람회는 2011년 1월 시작한 일자리 정보제공 프로젝트인 'KB굿잡'의 일환이다. 12년 간 총 20회에 걸쳐 약 91만 명에 달하는 구직자와 4300여 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한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로 성장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도 700여 개 구인기업이 참가신청을 하며 준비 단계부터 성황을 이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차별화 콘텐츠로 일자리 연결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주목받았다. 먼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업, KB금융이 육성하는 스타트업 'KB스타터스', ESG 경영을 실천하는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 기업안정성과 고용환경 등 서술사가 인증한 서술형 강소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대기업 협력사 등으로 구성했다.

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취업준비생의 집중과 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 ASMR', 급여 및 복지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하는 'PR챌린지', 면접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을 알려주는 '스피치 트레이닝', 기업·업무 분석, 자기소개서 및 인공지능(AI) 면접 컨설팅 등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온라인 취업컨설팅', 창업을 꿈꾸는 구직자 대상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KB B소호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구인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채용 트렌드 콘텐츠도 제공한다.

회사 측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취업박람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취업컨설팅과 화상면접 등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며 "KB굿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직자는 채용공고 검색을 통해 입사지원, 구인기업은 인재정보 검색을 통해 면접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 대출금리 우대에 채용지원금까지

대출금리 우대 및 채용지원금 지급도 눈에 띈다. KB굿잡 취업박람회 참가기업이 KB국민은행에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p 범위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굿잡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 정규직원을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100만 원(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KB굿잡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채용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가기업에게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화 인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채용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

고 있다.

취업박람회뿐 아니라 취업 교육 프로그램인 KB굿잡 취업학교 등을 통해 'KB굿잡=취업1번지'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 결과 KB굿잡은 2014~2022년 코리아 탐 어워드 사회공헌브랜드 부문 9회 연속 대상, 2019~2021년 올해의 일자리 대상 3회 연속 수상, 2019~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대상 국회정무위원대상 2회 연속 대상, 2019 좋은 일자리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KB국민은행 측은 "다양한 취업성공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며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도하는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함영주 회장 "혁신 플랫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하나금융)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선포 신뢰·혁신·플랫폼 3대 방향성 담아

하나금융이 새로운 비전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했다

하나금융만의 방식으로 시간, 공간, 미래, 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신뢰, 혁신, 플랫폼이라는 그룹이 나아가야 할 3대 방향성을 담았다.

올바른 금융을 실현하는 신뢰를 추구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한층 더 진화

한 금융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핵심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곡점을 맞아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대담하고 선도적인 비전의 재정립을 추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목표인 'O.N.E. Value 2030'도 수립했다. 고객 가치(Our Value), 사회 가치(New Value), 혁신 가치(Extra Value) 등으로 구성했다. 고객 중심 그룹으로 거듭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서며 경계를 뛰어넘는 미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조직 개편도 단행해 기존 리더십센터 내 기업문화셀을 기업문화팀으로 확대하고 그룹디지털총괄 산하에 디지털전략본부, 데이터본부, 정보통신기술(ICT) 본부를 뒀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그룹전략총괄 산하에는 신사업전략팀도 신설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누구에게나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금융을 넘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연결해줄 것"이라며 "하나금융만의 혁신 플랫폼을 통해 모두가 마음껏 금융을 즐기고, 신뢰에 기반한 새로



하나금융의 새 비전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발표하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제공 하나금융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함께 비전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정정욱 기자

우리은행, 아이유와 '우리WON' 광고 캠페인



우리은행이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우리WON' 광고 캠페인(사진)을 선보였다. 캠페인 슬로건은 '알길 원해? 우리WON해'로, 복잡한 금융 생활의 해답을 모바일뱅킹 '우리WON'을 통해 찾으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WON' 브랜드의 유용함과 편리성을 강조해 '우리WON'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라는 우리금융의 슬로건을 담았다"며 "고객이 금융 솔루션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WON'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먼저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우리WON' 광고 캠페인(사진)을 선보였다. 캠페인 슬로건은 '알길 원해? 우리WON해'로, 복잡한 금융 생활의 해답을 모바일뱅킹 '우리WON'을 통해 찾으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WON' 브랜드의 유용함과 편리성을 강조해 '우리WON'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라는 우리금융의 슬로건을 담았다"며 "고객이 금융 솔루션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WON'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먼저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7일(화) 음력: 5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쥐 | 소 | 호랑이 | 토끼 | 용 | 뱀 |
|---|---|---|---|--|---|
| 행운색: 흰색 길방: 서 | 행운색: 적색 길방: 남 | 행운색: 검정 길방: 북 | 행운색: 검정 길방: 북 | 행운색: 적색 길방: 남 | 행운색: 청색 길방: 동 |
|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여자는 부인병을 조심해야겠다. |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영동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초록색계통의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 이일 제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경계방도를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우왕좌왕하기 쉬운 날이다. |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 |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었다. 남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
| 말 | 양 | 원숭이 | 닭 | 개 | 돼지 |
| 행운색: 청색 길방: 동 | 행운색: 흰색 길방: 서 |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 행운색: 검정 길방: 북 | 행운색: 적색 길방: 남 | 행운색: 흰색 길방: 서 |
|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때때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행동하라. |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날이다. |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은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금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었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 소가 등을 빌빌 언덕을 만나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의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겠다. |

| 오늘의 날씨 | | | 7일(화) | | |
|----------|----------|------------------|----------|----------|--------------|
| 서울 20/20 | 인천 20/20 | 춘천 30/20 | 15 24 | 15 23 | 13 22 |
| 강릉 80/60 | 대전 30/60 | 전주 30/60 | 14 18 | 15 24 | 17 23 |
| 광주 30/60 | 대구 30/30 | 부산 30/30 | 17 24 | 15 22 | 16 22 |
| 창원 30/30 | 제주 30/60 |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 16 22 | 18 22 | 최저 최고기온°C |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